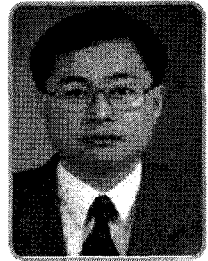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로 희망의 무지개를 띄우자



양 창근

대한제당(주) 사료BI본부장,
본회 부회장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어 매년 축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 따라서 각 방면에 축산관련 전문인력의 요구가 높았던 때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한제당 무지개 사료에 입사한 지 어언 30년이 되었다.

대학때 어설피게 배웠던 이론과 실습, 군수의장교로서 식품검사 업무가 전부인 나에게 향후 전문 산업 동물 수의사로서의 역할은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양돈 등 축산 전반에 관한 이론 및 농장 실습, 세미나 발표 등 축산과 4년의 과정을 6개월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받았던 기억이 힘들었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떠오른다.

그 당시의 축산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느끼며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잘 나가던 우리 축산산업 첫 시련은 1997년 불어닥친 금융위기 'IMF'였다. 치솟는 환율

과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자산 감소 등으로 은행권이 무너지면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업은 치명타를 맞았다. 이때 몇몇 회사는 부도 및 법정 관리를 겪으면서 성장을 계속하던 국내 축산 시장은 성장이 멈춰 1600만톤 $\pm 5\%$ 규모를 지난 10년간 유지해왔다.

이때에 회원사들은 사료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간의 연대 보증 및 대관 노력으로 어렵지만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며 국내 축산 농가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했다. 안정적인 사료 공급으로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에 힘쓴 결과 지난 10여년간 작은 불황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발전을 지속해 왔다. 이처럼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료 산업과 생산농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합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헤쳐 나왔다고 자부한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하던 축산업이 최근 다시 위기를 맞았다. 한달 동안 이어지는 한파와 두 달 이상 확산속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구제역으로 2011년 새해부터

축산인 모두에게 시름을 안기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까지 소의 경우 현재 350만 마리중 4.3%인 15만두가 살처분 되었고, 돼지 985만 마리중 33%인 323만4천두가 살처분 되었다.

특히 경북 안동지역은 살아남아 있는 우 제류가 10%를 밀돌고 있을 뿐 아니라 김포, 파주, 포천, 철원, 이천, 여주 등도 사육 마리 수의 80% 이상이 살처분 되었다. 축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구제역 종식 이후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역경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새클턴을 떠올려 본다. 1914년 8월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다. 하지만 목적지를 불과 150km 앞두고, 이들이 타고 온 인듀어런스(Endurance)호가 얼어 붙은 바다에 갇혀 버린다. 배는 곧 부서졌고, 새클턴과 대원들은 남극해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갇혀 꼼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부터 이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과 싸우게 된다. 남극에서의 오랜 표류 끝에 새클턴은 부하대원 5명을 따로 선발, 20m가 넘는 높은 파도에 맞서 갑판도 없는 무동력 보트를 타고 1300km나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그 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적

인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새클턴은 목숨을 건 634일에 걸친 긴 사투 끝에 남극에 남기고 온 대원 22명을 포함 27명의 대원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

최고의 리더십은 기적을 이뤄냈다. 우리도 지금부터는 과거의 기억과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자. 사료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 축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다시 축산업의 동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클턴이 발휘했던 희생 및 협력의 리더십을 사료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간, 나아가서는 농장까지 확대하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자성어 중 즐락동시(倅塚同時)라는 말이 있다, 이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동시에 알을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료협회 및 회원사, 생산 농장 간 이해와 협조가 최우선이다.

현재 위기의 극복과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관련 산업체, 농가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한번 사료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의 축산에 희망의 무지개를 띄워야 겠다. ☘